

자가수혈을 적극 활용합시다



박 성 화
경북대학교병원
혈액은행

수혈로 인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감염으로 수혈당사자와 그 가정은 물론 환자들 사이에도 수혈에 대한 공포를 느낌으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야기시키는 HIV는 그 진단 방법상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감염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최근 개발된 핵산증폭검사법(NAT)도 감염된 후 11일 정도가 지나야 양성판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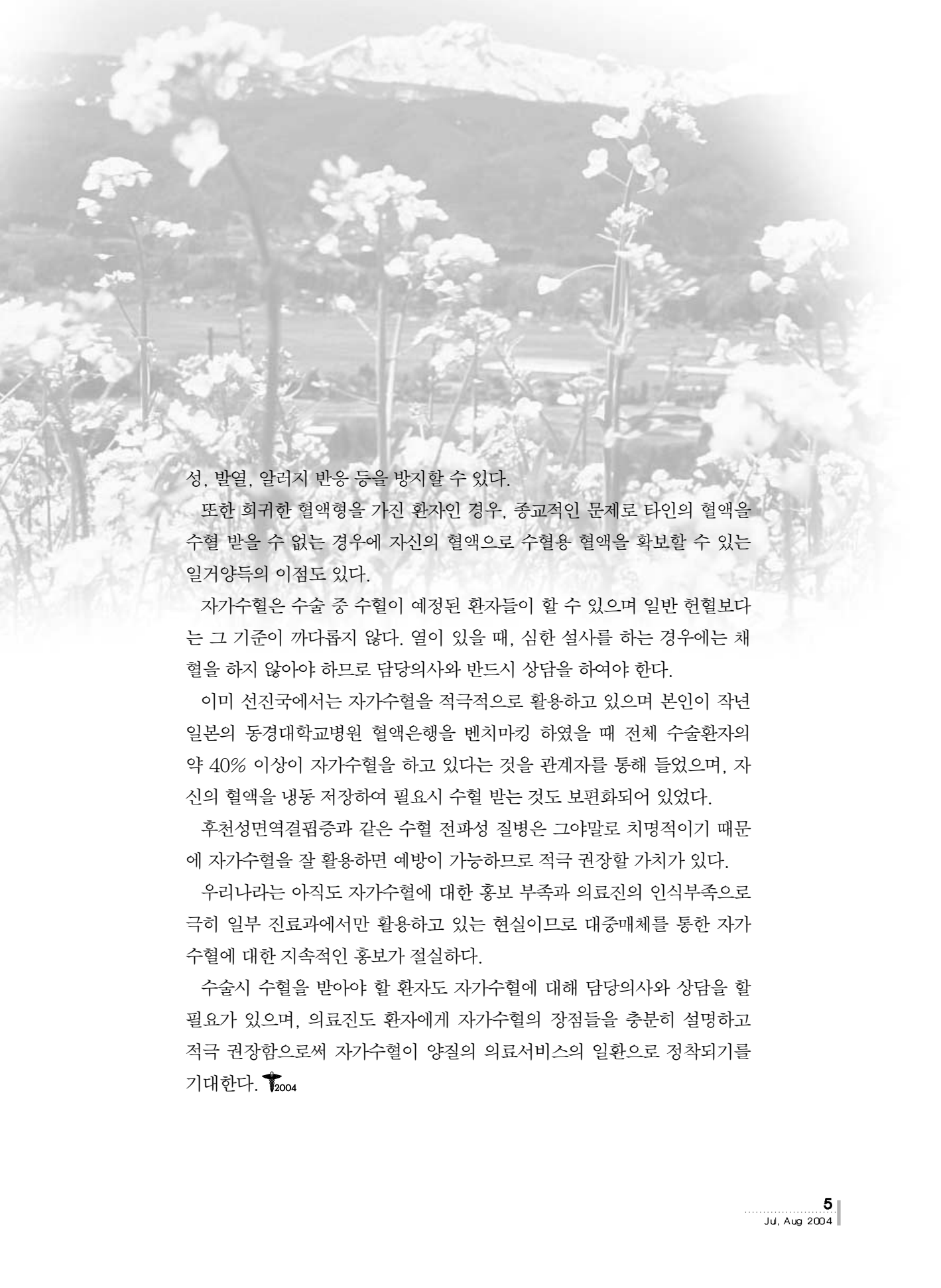
HIV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현재의 검사법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항체미형성기(window peroid)에 헌혈한 혈액을 다른 환자가 수혈 받게 된다면 HIV 감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수혈이 때로는 생명을 구하고 치료에 보조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각종 간염, 매독, 말라리아 등 여러 가지 질환 등을 전파시키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혈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적극 권장되는 것이 자가수혈이다.

자가수혈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혈액을 헌혈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채혈해두었다가 필요시에 수혈 받는 것을 말한다.

자가수혈의 장점은 자신의 혈액을 수혈 받음으로써 앞에서 예를 든 수혈 전파성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전 일정 간격을 두고 채혈하기 때문에 조혈기능이 촉진되어 수술 후 혈액학적으로 회복이 빠른 이점도 있으며 타인의 혈액을 수혈 받음으로서 생길 수 있는 동종면역의 형



성, 발열, 알러지 반응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환자인 경우, 종교적인 문제로 타인의 혈액을 수혈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혈액으로 수혈용 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점도 있다.

자가수혈은 수술 중 수혈이 예정된 환자들이 할 수 있으며 일반 헌혈보다는 그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열이 있을 때, 심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채혈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담당의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가수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작년 일본의 동경대학교병원 혈액은행을 벤치마킹 하였을 때 전체 수술환자의 약 40% 이상이 자가수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자를 통해 들었으며, 자신의 혈액을 냉동 저장하여 필요시 수혈 받는 것도 보편화되어 있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수혈 전파성 질병은 그야말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가수혈을 잘 활용하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적극 권장할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가수혈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의료진의 인식부족으로 극히 일부 진료과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대중매체를 통한 자가수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수술시 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도 자가수혈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진도 환자에게 자가수혈의 장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 권장함으로써 자가수혈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004